

“무등에서 시작된 용틀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박소빈 초대전, 오는 3월 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회화 등 150여 작품... ‘용의 부활-무등의 신화’ 눈길

화면 속 용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른다. 마치 형형색색의 비눗방울 같다. 동등 떠다니며 세포분열을 하는 용은 몽계구름 같기도, 무지개 같기도 하다. 한편으론 밀도 짙도 알 수 없는 실타레가 허공으로 풀어헤쳐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도 같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박소빈 작가의 ‘미르 사랑, 용의 무한한 신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작가의 상상력에 깃든 용의 실체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12지 중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이 바로 용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



'I See You, UMMA'

이다.

용이 아닌 다른 동물이었다면 이렇게 역동적이고 스펙터클하게 풀어내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작가의 넘치는 창작 에너지를 감안하면 충분히 형상화가 가능하겠지만 신화적이면서 심미적인 모티브로 용을 능가할 소재는 없을 듯하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에서 열리고 있는 박소빈 ‘용의 신화, 무한한 사랑’ 전(3월 24일까지 본관 제5-6전시실).

특유의 상상력을 매개로 생명력 넘치는 그림을 그려 온 박소빈 작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연필을 덧칠해 구현한 용의 형상과 그것이 발하는 신비로움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박 작가는 중국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2009년 뉴욕 브루클린 BOS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한 이후로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다.

이번 전시에서도 박 작가는 용을 모티브로 무한대의 상상의 나라를 뻗는다. 관객들은 하늘을 나는 용의 등허리에 앉아 작가가 펼쳐내는 신비한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그저 용을 타고 하늘로 우주로 날아다니는 것은 잠시 잠깐의 유희에 지나지 않을 터.

그러나 작가는 동양미학, 불교사상 같은 이상적



박소빈 작가



박소빈 작가가 구례 화엄사에서 접한 ‘용’ 형상과 부석사 설화는 평생 화두가 됐다. 작품은 ‘부석사 설화-새로운 신화창조’.

세계관을 용에 투영해 단순히 비룡의 스릴만이 아닌 사유의 깊이까지 담보해낸다.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은 회화를 비롯해 영상, 판화, 입체, 드로잉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까지 모두 150여 점이다.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용의 부활-무등의 신화’. 오른쪽 아래에는 옛 전남도청 분수대가 따리를 들고 있다. 왼쪽 상단에는 화룡점정(畫龍點睛)처럼 박힌 커다란 용의 눈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무등산 줄기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영혼이 마치 비룡처럼 용틀임을 한 뒤, 광주를 넘어 세계를 향해 부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듯하다.

박 작가는 “2024년 갑진년 새해는 새로운 신화가 광주에서 시작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무등의 신화’가 생명과 무한한 사랑으로 전이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회려한 색감과 이색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부석

사설화-새로운 신화창조’도 이채롭다. 작가는 판화 기법에 연필로 드로잉을 한 뒤 다양한 색상을 입혀 섬세함과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북경에 있을 당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용’ 작업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부석사 설화를 알고 있는 관객들이라면 그림 앞에서 사랑의 불멸을 기원해볼지도 하다.

김민경 학예사는 “박 작가는 젊은 시절 구례 화엄사에서 ‘용’의 형상을 접했으며 이후 부석사 설화를 알게 되면서 평생 자신의 화두로 삼게 됐다”며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용을 다양한 구상과 신화적 상상력을 매개로 풍성하면서도 아름답게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필로 그린 그림은 단순한 스케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박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 활동으로 연필화는 회화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덧붙

였다.

전시실에는 박 작가의 대학시절 작품 ‘21살, 시대의 자화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화해온 다양한 형상의 용이 ‘따리’를 들고 있다. 오브제임에도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된 ‘This is sobin’도 눈길을 끈다. 작가의 손에서 닳아 없어진 무수히 많은 연필의 흔적이 가늠된다. 마치 작가의 내면에 꿈틀 거리는 또 다른 용을 표현하기 위해 몽당연필과 그 진해는 호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막행사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심포지엄이 예정

됐다. 김준기 관장은 “새해 시작된 박 작가의 미적 자장이 광주와 중국 너머 유럽 베니스 등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작품이 주는 생명과 꿈의 에너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여러분~ ‘엘사의 겨울이야기’ 궁금한가요

추운 겨울 따뜻한 어린이 공연들

-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 ‘마술사 최형배의 과학마술콘서트’
- 뮤지컬 ‘이상한나라의 엘리스’
- ‘미녀와 야수’·‘엘사의 겨울이야기’



‘겨울왕국’ 엘사.

〈광주일보 DB〉

광주-전남에 불쑥 찾아온 한파로 몸이 잔뜩 움츠러드는 요즘이다. 따뜻한 공연장에서 부모님 손을 잡고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공연 다섯 편을 소개한다.

오는 13일(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는 속도와 박진감이 넘치는 다이내믹 마술 공연이다. 관객과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코믹 소를 목표로 공, 모자, 디아볼로(중국 요요) 등 다양한 묘기를 보는 재미가 기대를 모은다.

스테디셀러 뮤지컬인 ‘미녀와 야수’는 20일 오후 1시, 3시, 5시에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볼 수 있

다. 어느 날 벨의 아버지가 길을 잃고 외딴 성에서 야수에게 감금당한 뒤, 벨이 아버지 대신 성에 남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두 공연 모두 2만 원~3만 5000원(24개월 미만 무료).

이밖에도 ‘마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마술 콘서트 공통편’도 다음 달 16~17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흥미롭게 본 어린이라면 판타지 가족뮤지컬 ‘엘사의 겨울이야기’를 추천한다. 13일까지 서구 행복을주는가족극장(금화로 240 3층)에서 펼쳐지며 평일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오후 4시, 주말 낮 12시, 오후 2시,

4시 진행.

공연은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명작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한 판타지 극이다. 에렌달 왕국의 공주이자 무엇이트든 알릴 수 있는 언니 엘사와 여동생 안나가 왕국을 구하는 모험기를 담았다.

이외 광주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리는 아동뮤지컬 ‘이상한나라의 엘리스’도 볼거리. 극단 이후와 놀이터가 선보이는 공연은 오는 20일(오후 1시, 3시, 5시)과 21일(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총 6차례에 걸쳐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티켓 3만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아트페어 참가지원 나선다

지역화랑 공모 통해 선정...지역 작가들 작품 판로 모색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하 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화랑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을 위해 작품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 판로를 모색하고 유럽, 동아시아 등 세계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재단은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4천여 점의 미술 작품을 유통·판매해 왔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비 명목으로 300만 원~2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공모에는 작품 유통, 판매, 전시 등에 전문성 있는 전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소재 화랑(갤러리)으로, 최근 3년간 아트페어 5회 이상 참가실적이나 전년도 20점 이상 작품판매 실적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재단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미술관, 남도사이버갤러리 홈페이지 등에서 작품과 화랑을 홍보할 수 있다.

재단 창작지원팀 한승진 대리는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작가들의 시장진출 판로 개척을 비롯해, 세계로의 비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스 임차



2023 서울아트쇼 출품작인 고완석 ‘LOOK23-302’

〈전남문화재단 제공〉

료, 작품 운송비 등 경비를 지원받아 지역 작가들이 아트페어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트페어 참가 시 전남 작가 중 최소 1인 선정해 3점 이상 출품 의무이며, 수익배분은 40% 초과할 수 없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랑의 설렘 가득...평범한 연인들 이야기

극단 밝은밤 뮤지컬 ‘연애를 잃다’ 12~14일 씨어터 연바람

“우리의 밤이 어둠으로 덮이지 않도록”

극단 밝은밤(예술감독 한지성)이 사랑의 설렘을 가득 담은 새해 첫 창작 로코뮤지컬 ‘연애를 잃다’를 오는 12~14일 씨어터 연바람에서 선보인다. (12~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5시 상연)

인호(이태영 분)와 지현(정수린)은 3년 넘게 만난 커플이다. 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인호와 모든 일상을 공유해주길 바라는 지현,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만 그럼에도 곳곳이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인호는 모종의 이유로 돌연히 사라져 버리면서 이른바 ‘잠수 이별’을 한다. 마침표 없는 이별 뒤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조금씩 인호를 잊고 일상을 살아가던 지현 앞에 갑자기 인호가 나타난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남자.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여자의 마음이 흔들린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의 마법에 빠져 ‘재회’해도 될까?

한편 공연은 기존 대중음악을 활용한 주크박스 뮤지컬로, 익숙한 곡들을 연기와 함께 감상하는 묘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관객참여 코너도 마련돼 있다. 젓가락으로 잘 집이지 않는 껌을 먹는 이성을 도와줘도 되냐는 ‘껌잇 논쟁’이나, 너무 추울 때는 패딩을 벗어줘도 되는지에 관한 ‘패딩 논쟁’ 등을 주제로, 연인 사이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임재빈 연출가는 “작품 속 주인공처럼 어두운 하루하루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이, 공연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재회를 고민하는 연인들, 평범한 연인들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의미



뮤지컬 ‘연애를 잃다’ 연습 장면. 〈밝은밤 제공〉

로 해석될 수 있는 공연이다”고 말했다. 공연은 비정규직 좌석제로 운영되며,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될 예정이다.

티켓 2만 원, 2인 이상 예매 시 각 1만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장민규 첫 시집 ‘그런 밤을 지나온 적이 있다’ 펴내

장민규 시인은 “세평을 의식하거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로 우뚝 서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만이 추구하는 시적 세계를 향해 두뼉두뼉 걸어가고 싶다는 바람으로 일한다.

장민규 시인이 첫 시집 ‘그런 밤을 지나온 적이 있다’ (문학들)를 펴냈다.

순천 출신인 시인은 지난 2019년 ‘시에’ 시인 상으로 작품활동을 펼쳐왔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집에서는 자신의 삶의 본질과 모순, 고통 등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시에 드리워진 고유한 음영은 시적 화자가 보았고 견뎌왔던 세상살이에 대한 이미지가랄 수 있을 것이다.

“황새가 먹이를 쪼파게 남아있는 동안/ 아주 잠깐 휴양물이 일었다./ 부리에 걸린 물고기가 전 생애를 걸고/ 몸부림칠 때/나는 어느 절 추녀 끝에 걸린 풍경을 생각했다./ 벗어날 수 없는 풍경이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맹강, 소리



가 났다.// 팽팽하던 긴장이 빠져나간 물속/ 흙탕물이 잠시 솟았다가/ 한참, 가라앉았다.”

위 시 ‘몽정’은 황새의 부리에 걸린 작은 물고기의 몸부림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는 이내 청각적인 소리로 전환된다. 눈앞의 풍경이

어느 사람의 추녀 끝 풍경으로 전이된다. 부리에 걸린 물고기가 몸부림칠 때 시적 화자의 컷가를 물들이는 절집의 풍경소리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상인 시인은 “시인은 이렇듯 순천, 광양, 구례, 여수 오일장을 돌며 삶의 불꽃을 활활 피우며 시를 피우고 있다”며 “시인의 건강한 오일장의 노동과 경전처럼 시를 대하는 태도가 늘 미더움으로 다가와 앞날을 기대하게 한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